

17·18세기 서양 선교사들의 문법서에 관한 소고*
- Grammatica Sinica와
Arte de la lengua Mandarinina의 비교 연구

조경환**

<目 次>

1. 서론
2. 출판배경 및 판본
3. *Grammatica Sinica*와 *Arte de la lengua Mandarinina*
의 구성 및 특징 비교
 - 1) 기본구성
 - 2) 명사의 품사전환과 격
 - 3) 양사
 - 4) 형용사
 - 5) 피동태
 - 6) 부정
 - 7) 중국어의 시제
4. *Arte de la lengua Mandarinina*만의 특징
 - 1) 종교적인 예문
 - 2) 발화의 세 가지 방식
 - 3) 조동사
 - 4) 의문
 - 5) 불변화사
5. *Grammatica Sinica*와 *Arte de la lengua Mandarinina*
의 문계점과 의의
6. 결론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B5A020-30071].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서론

1898년도에 출간된 馬建忠의 『馬氏文通』은 중국 최초의 문법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馬氏文通』은 중국인이 쓴 최초의 문법서이지 중국어에 관한 최초의 문법서는 아니다. 사실 중국어 문법서들은 『馬氏文通』보다 훨씬 오래전인 17세기부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이미 쓰여졌으며, 19세기에 정점을 이뤘다가, 20세기 초에 급격히 쇠퇴하였다.

본 논문에서 논의할 Martino Martini의 *Grammatica Sinica*와 Francisco Varo의 *Arte de la Lengua Mandarina*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쓰여진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들이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Bertuccioli(1996, 1998, 2003), Franco & Richards(1996), Coblin & Levi(2000), Sandra(2000), Partenicao(2011) 등 서구 학자들에 의해 먼저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는 妖小平(2001, 2011), 張西平(2011), 董海櫻(2011), 李文娟(2013) 등에 의해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이 두 권의 문법서들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고에서는 *Grammatica Sinica*와 *Arte de la Lengua Mandarina*의 전반적인 체계와 특징 및 배경 등의 비교를 통해 두 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문법학사에서 이들 문법서들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2. 출판배경 및 판본

물론 Martino Martini 이전에도 중국어에 대한 연구들은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Matteo Ricci(1552-1610)는 중국어는 서면어와 구어의 차이가 크고, 비록 복음절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로 단음절 위주의 단어들로 구성되며, 5개의 성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¹⁾ Nicolas Trigault(1577-1628)는 『西儒耳目資』(1626)를

1) Matteo Ricci(1610/2011:51-52) 참조.

지어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 방식을 적용하는 등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구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²⁾ 이와 같이 명말 청초(明末清初)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과 선교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국어 문법서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도 높아졌다. 妖小平(2001:475)에 따르면 *Grammatica Sinica* 이전에 Juan Cobo(1546-1592)의 *Arte de la Lengua China*라는 문법서가 1592년도에 출간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유실되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Martini는 중국에서 예수회·도미니코회·프란치스코회 간에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이었던 이른바 '典禮 문제'³⁾로 로마 교황청에 이 문제를 보고하러 가는 도중 뜻밖에도 네덜란드 인들에 의해 인도네시아 Batavia에 강제로 억류되었다.⁴⁾ Martini는 바로 이 억류기간인 1651년과 1652년 사이에 *Grammatica Sinica*를 썼다고 알려졌다. Martini 본인은 애초에 자신의 책을 출판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Grammatica Sinica*가 독립된 책으로 출간된 적은 사실상 없었다. 이 책의 인쇄본은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동양학자인 Melchiesedeck Thevenot (1620-1692)의 문집인 *Relations De Divers Voyages Curieux(1696)*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1922년 Paul Pelliot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Bertuccioli 1996:206), 필자 역시 *Grammatica Sinica*가 Thevenot의 문집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인쇄본의 출판 시기는 늦어도 1696년이므로⁵⁾, 뒤에서 살펴볼 Varo의 문법서(1703)보다도 7년 이상 빠르므로 공식적으로 현존하는 중국어에 관한 최초의 문법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는 여전히 *Grammatica Sinica*라고 할 수 있다.

*Grammatica Sinica*가 세상에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태리의 중국학자

2) Trigault와 『西儒耳目資』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Takeda(1998/2004) 4장을 참조바람.

3) '典禮' 문제는 중국의 제사·조상숭배·공자숭배 등을 허용하는가에 관한 카톨릭 교파간의 논쟁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 예수회는 허용함에 찬성하는 반면,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반대하였다.

4) 서양자(2010:288) 참조.

5) 본고에서 참고한 *Relations De Divers Voyages Curieux(1696)*는 Boston 공공 도서관 소장본이다.

Giuliano Bertuccioli(1923-2001) 덕분이다. 그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Martini의 필사본 5부(Glasgow 대학 도서관 3부, Berlin Royal 도서관 1부, Jagiellonska 대학 도서관 1부)를 발굴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이후 Partenico(2011)가 추가로 필사본 3부(Rome 개인 수집가 Giovanni Vacca⁶⁾, Cambrai市 도서관, Vigevano 역사 기록 보관소)를 발견함으로써 이 문법서에 관한 필사본은 현재 모두 8부가 존재한다. 이것들은 차례대로 『문법 A』·『문법 B』·『문법 C』·『문법 D』·『문법 E』·『문법 F』·『문법 G』·『문법 H』라고 명명되었으며, 또한 Boston 공공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인쇄본은 『문법 I』라고 불린다.⁷⁾

Bertuccioli(1998)는 이 필사본들(『문법 A』-『문법 E』)을 대조 분석한 후 『문법 A』를 기본으로 하여 *Grammatica Sinica*를 발표하였는데,⁸⁾ 왜냐하면 『문법

6) Giovanni Vacca(1872-1953)는 이태리의 수학자이자 중국학자이다.

7) Partenico(2011:262)는 *Grammatica Sinica*의 필사본과 인쇄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문법』	원래 명칭	소재지	또 다른 저자	中文유무
A	<i>Grammatica Sinica</i>	Glasgow대학 도서관	Couplet	○
B	<i>Martino Cupletiana Grammatica Sinica</i>	Glasgow대학 도서관	Couplet	○
C	<i>Grammatica Linguae Sinensis</i>	Glasgow대학 도서관	無	X
D	<i>Grammatica Linguae Sinicae Universalis</i>	Jagiellonska대학 도서관	Mentzel	○
E	<i>Clavis Sinica</i>	Berlin Royal 도서관	Mentzel	○
F	<i>Grammatica Linguae Sinicae</i>	Giovanni Vacca	Couplet	○
G	<i>Grammatica Linguae Sinensis</i>	Cambrai市 도서관	無	X
H	<i>Grammatica Linguae Sinensis</i>	Vigevano 역사기록보관소	無	X
I	<i>Grammatica Linguae Sinensis</i>	Boston 공공 도서관	無	X

8) 이는 Bertuccioli(1998)가 편찬한 Martino Martini 문집 *Opera Omnia. Vol II*에 수록되어 있다. Bertuccioli는 여러 필사본을 비교 분석한 다음 이를 정리하여(『문법 A』를 기본으로) 출판하였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남아있는 판본이 없는 현재로서는 이 판본이 가장 믿을만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판본과 중역본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다. 인용 표시 역시 Bertuccioli(1998)의 판본과 중역본(2011)을 차례대로 표시하였다.

A₁의 속 페이지에는 Martini가 이 문법서를 지었다는 점과 T.S. Bayer가 1716년 9월 필사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들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판본이기 때문이다(Bertuccioli 2003:637).⁹⁾

한편 Martini의 *Grammatica Sinica*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중국어에 관한 최초의 문법서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Francisco Varo의 *Arte de la lengua Mandarin*(1703)(이후 ‘Arte Mandarin’로 약칭)이었다. 실제로 妖小平(2001)은 이 책을 현존하는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로 소개한 적이 있었다.¹⁰⁾ *Grammatica Sinica*의 판본이 복잡한데 비해 *Arte Mandarin*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이 책은 1682년도 처음에는 스페인어로 이후 1684년도에 다시 라틴어로 쓰여 졌는데, 이후 Basilio Glemona(1648-1704)에 의해 1703년도에 광둥에서 정식으로 출간되었다.¹¹⁾

3. *Grammatica Sinica*와 *Arte de la Lengua Mandarin*의 구성 및 특징 비교

1) 기본 구성

*Grammatica Sinica*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중국어의 320개의 단어 설명과 5개의 성조(去聲, 上聲, 入聲, 平聲, 濁平)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어 문법에 관한 설명은 2장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이

9) T.S. Bayer(1694-1738)는 중세시기 유럽의 중국학자로 베를린 Royal 도서관에서 Martini의 *Grammatica Sinica*를 필사하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베를린 Royal 도서관에서 많은 필사본이 사라진 반면, Bayer의 필사본은 Glosgow 대학 도서관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Lundbaek 1990:204).

10) 물론 妖小平(2001)은 이후 *Grammatica Sinica*를 접한 이후 이러한 견해를 수정하였다.

11) Varo의 출판본은 Coblin과 Levi에 의해 2000년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도 Coblin & Levi(2000) 판을 참고하였다. 이 책은 한 쪽은 원본, 다른 쪽은 번역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용 표시 역시 원본(1703)과 영역본(2000)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중역본은 구하지 못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책의 문법 부분인 2장과 3장에 집중할 것이다.

〈표 3-1〉 *Grammatica Sinica*의 구성

1장	단어설명, 성조와 발음
2장	명사, 대명사, 동사
3장	개사, 부사, 감탄사, 상용되지 않는 연사(連詞), 명사의 원급, 비교급과 최상급, 대명사 부록, 수사(數詞)와 양사
부수	Martini가 라틴어로 의미를 달음

한편 *Arte Mandarina*의 체계와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 Varo의 *Arte Mandarina*의 구성

1장	몇 가지 권고
2장	중국어의 성조
3장	명사와 대명사의 어형변화
4장	실명사, 형용사, 비교어
5장	동사적 명사, 직업, 성
6장	대명사
7장	감탄사, 연사(連詞), 부정 등
8장	동사와 그것의 활용
9장	피동
10장	개사와 부사
11장	문장을 형성하는 방식
12장	숫자와 數詞
13장	여러 가지 불변화사
14장	중국어의 경어들
15장	어떻게 관리들, 친척,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가: 어떻게 구어와 서면어로 자신을 지칭하는가.
16장	방문과 초대되었을 때의 경어들

특이한 점은 Varo가 전체 16장 중 무려 3장(14장, 15장, 16장)이나 중국어의 경어와 예절에 관하여 할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성은 19세기 선교사들의 문법서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 또한 Varo 자신의 언어관과 문법관을 잘 보여주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문법이 언어 습득을 위한 수단이

며, 그의 문법서가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에서의 실생활과 선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 것이었다. 예를 들면 ‘令尊’, ‘貴國’, ‘家父’와 같은 단순한 호칭뿐만 아니라 방문과 초대되었을 때의 인사말, 주인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까지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로부터 Varo가 단순히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생활과 문화에도 능통했음을 알 수 있다.

2) 명사의 품사전환과 격

Martini(1998:409, 2011:110)는 먼저 중국어에서 동일한 글자일지라도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예를 들면 동사로만 쓰일 수 있는 ‘打’·‘去’와 달리 ‘愛’·‘想’은 위치에 따라 명사와 동사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 (1) a. 我愛你.
당신은 나를 사랑해.
b. 我想他. (1998:409, 2011:110)
그는 나를 그리워해.
- (2) a. 我的愛
나의 사랑
b. 我的想 (1998:410, 2011:110)
나의 생각

한편 예문(2)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이 Martini는 이 ‘的’자가 ‘소유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Martini가 *Grammatica Sinica*에서 언급한 유일한 격(case)이다.¹²⁾

Varo(1703:21/2000:57) 역시 Martini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명사들이 형

12) 이러한 현상은 명사와 동사에서뿐만 아니라 형용사에서도 관찰되는데, Martini(1998:410, 2011:111)는 보통 명사 앞에 놓이지만, 명사 뒤에 놓인다면 그 형용사는 명사로 변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好人’(좋은 사람)과 ‘人的好’(사람의 좋은 점)이 그러하다.

태 변화가 없음에 주목하였고, 문장 안에서 그것의 위치에 의해 주격인지 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Martini와 Varo가 모두 이러한 점을 자신들의 문법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당시 서구인들의 눈에는 중국어에 형태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신기하게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artini는 단순히 ‘의’자를 첨가하면서 명사의 속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언급한데 비해, Varo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는데, *Arte Mandarina*의 격(case)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3〉 *Arte Mandarina*(1703)의 격(Case) 체계

	특징	예문
주격	V 앞 위치	天主生天地萬物。
속격	+的, 之	天主的恩, 天主之主
여격	+與, 以	賜與我們其一位。這米是以養窮者。
대격	V 뒤 위치 때때로 V앞에 옴	你該愛天主。 一天一百里路我會走。
호격	+呀, 哉	呀吾主赦我罪。哀哉。
탈격	+同, 合, 共, 與, 對	共去。與他吃。對他說了。

이로부터 격(Case) 개념으로 중국어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선교사들이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라틴어의 격 개념으로써 중국어를 분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 일수도 있다.¹³⁾ Sandra(2000:28)는 이를 새롭고 낯선 것을 묘사할 때에는 당연히 잘 알고 알려진 것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친숙함(familiarity)’의 문제라고 여겼다. 이에 *Arte Mandarina*의 명사에 대한 격

13) Varo는 서론에서 라틴어에 관하여 언급할 때 Antonio de Nebrija(1444-1522: *Arte Mandarina*에서는 Nebrixa로 표기됨)를 언급하였는데, Nebrija는 스페인의 문법학자이다. Varo는 서론에서 “설령 Nebrija의 모든 라틴 문법의 규칙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를 훌륭한 라틴 문법학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Varo는 8장(1703:49/2000:113)의 동사 부분에서 Nebrija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 그가 Nebrija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Sandra(2000:26)와 張西平(2011:105) 역시 Varo의 *Arte Mandarina*는 Nebrija의 *Grammatica de la Lengua Castellana*(1492)의 기본 체계와 방법론을 계승했음을 언급하였다.

(Case) 체계는 정확하게 라틴어의 명사의 격 분류와 일치한다.¹⁴⁾ 다만 Varo는 중국어의 주격이나 대격은 문장 위치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외의 격에는 예들 들면 속격의 ‘的’나 탈격의 ‘同’과 같이 격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여하였다.¹⁵⁾ 이러한 Varo의 중국어에 대한 격 분석은 이후의 서양 선교사들의 문법서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양사

Martini는 중국어의 양사를 매우 중시하여 한 장을 할애하면서 數詞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일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⁶⁾

- (3) 一盞燈, 一張紙, 一座房子, 一個婦人, 一位人, 一把刀,
一本書, 一條路, 一匹馬, 一句話, 一封信
(1998:440, 2011:133)

Martini는 기본적으로 ‘數詞+양사+명사’의 순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명사+數詞+양사’순으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 (4) 牛一頭, 馬一匹 (1998:448, 2011:142)
소 한 마리, 말 한필

이는 양사의 원래 배열(즉, ‘명사+數詞+양사’)의 잔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진시대에는 ‘一匹馬’라고 하지 않았으며, 漢代이후부터 오늘날의 배열로서 점차 쓰이게 되었는데,¹⁷⁾ Martini가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해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4) 라틴어 명사는 다양한 어미(격 표지)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동사의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또는 소유의 의미인지를 보여주는데, 주격(Nominative Case), 속격(Genitive Case), 여격(Dative Case), 대격(Accusative Case), 탈격(Ablative Case), 호격(Vocative Case)으로 나뉜다(Wheelock 2000/2005:10-12).

15) Varo는 또한 격 표지가 부여되는 것에도 역시 예외가 있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면 속격의 경우 ‘家主’, ‘銅錢’과 같은 경우에는 속격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16) 각주: 數詞와 受事(patient)는 독음이 같아 각각 중국어로 표기하였다.

한편 *Arte Mandarinana*에서는 양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다만 ‘個’와 ‘本’등을 불변화사(particle)로 잠깐 언급하였다. Varo는 오히려 양사보다는 부사와 개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5) 四個人, 六本書 (1703:72/2000:159)
네 사람, 여섯 권의 책

4) 형용사

*Grammatica Sinica*에서 형용사는 논쟁적인 품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형용사는 독립된 품사로 분류되지 못한 채 명사·부사·감탄사 등 무려 3개의 품사에 걸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Martini는 먼저 명사의 원급·비교급·최상급을 논의할 때, 형용사도 같이 논의하였는데, 정작 명사보다는 형용사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¹⁸⁾

- (6) a. 명사·형용사의 원급: 好
b. 비교급: 更好, 好過他 (1998:433, 2011:130)
c. 최상급: 絶好, 上好, 好得緊, 不好得緊, 第一好¹⁹⁾

Martini(1998:426, 2011:125)는 또한 ‘善’·‘妙’·‘好’·‘巧’를 예로 들면서 형용사를 다시 부사의 하위 부류로 두어 성질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그는 형용사를 또 다시 감탄사에 포함시켰는데, ‘苦’, ‘可憐’은 근심·비통함을 나타내며, ‘奇’는 부러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1998:429, 2011:127).

妖小平(2011:21)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품사 분류의 모호성은 초기 선교사들의 중국어 문법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선교사

17) 王力(1980/1997:61) 참조.

18) 따라서 이장의 제목은 “명사의 원급, 형용사의 비교급·절대급”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19) 한편 (7)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好過他’, ‘好得緊’, ‘不好得緊’과 같은 표현은 17세기 당시의 남방 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점이다(Bertuccioli 2003:634).

들이 라틴·그리스어 문법의 품사 분류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계파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라틴 문법과 그리스 문법을 학습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는 품사를 기본적으로 8개로 구분하였다. 이에 Martini의 *Grammatica Sinica*에서도 중국어의 품사를 명사·대명사·동사·개사·부사·감탄사·연사(連詞)·수량사의 8품사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 이 부류에 포함되지 못한 형용사는 여기저기에 속하게 된 것이다.

반면 *Arte Mandarin*(1703:28)에서는 형용사가 독립된 품사로 분류되었다.²⁰⁾ 비록 Varo(1703:20, 2000:55) 자신은 *Arte Mandarin*은 8품사 체계를 이룬다고 분명히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10품사 체계로 분류하였다. Varo(1703:28-29/2000:72-73)는 중국어의 형용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長的’, ‘白的’, ‘善人’, ‘黑人’, ‘富貴人’과 같이 반드시 앞 또는 뒤에 ‘的’나 명사와 같은 부가 성분이 놓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這米是好的。”, “這米好。”와 같이 술어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역시 주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Martini가 형용사를 모호하게 처리한 반면, Varo는 하나의 품사로 분명히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분류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는 중국어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며, 19세기의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Varo와 같이 형용사를 독립된 품사로 분류하였다.

5) 피동태

피동태에 관해서 Martini는 주로 ‘被’자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受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0)李文娟(2013)은 Varo의 품사 체계에서 형용사 대신에 분사(participle: 分詞)를 넣었다. 반면 妖小平(2001)은 분사대신 형용사를 넣었다. 본고에서는 妖小平(2001)의 견해를 따를 것인데, 왜냐하면 비록 Varo의 형용사 부류가 오늘날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단 본문에서 분명히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여 설명하였으며, 분사는 부분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7) 我被他打。 (1998:416, 2011:117)

나는 그에게 맞았다.

被字句가 기본적으로 ‘당하다’ 혹은 ‘여의치 않음(不如意)’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Martini의 이러한 관점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성 동사인 ‘知道’의 예를 보면 명확해지는데, 만약 “他知道了那件事。”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그가 그 일을 알았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만, “那件事被他知道了。”이라고 말한다면, ‘그 일이 그에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알려졌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被字句의 기본 의미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李臨定 1980/1999:68).

Varo(1703:69/2000:153)는 11장 문장을 이루는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문법태(Grammatical Voice)를 논의하면서,²¹⁾ 피동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被’자를 행위를 하는 사람(施事: agente) 앞에 두고, ‘被’자 뒤에는 행위를 두며, 受事(paciente)는 문두에 온다고 하였다.²²⁾

〈표 3-4〉 *Arte Mandarin*(1703)의 피동태 체계

피동태	형식	예
①	受事 + 피동 불변화사 + 施事+V + 的	我是你愛的。 吾主Jesu 被Judeo人釘十字架。
②	受事 + 동사	我是所愛的。 他是被打了。

21) 한편 Varo(1703:68, 2000:151)는 능동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능동태	형식	예
①	주격 + 동사 + 대격 때때로 대격 + 주격 + 동사	我愛天主。 這一本書我讀了。
②	행위를 하는 사람 + 동사	我教。

능동태는 크게 빈어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유형 ①에서 주격(nominative)은 [행위를 하는] 인칭 주격을 문두에 두고, 행위를 겪는 인칭 대격(accusative)을 뒤에 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은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분으로도 볼 수 있다.

22) Varo는 ‘被’자 외에도 ‘是’, ‘所’, ‘爲’ 등을 피동태의 예로 들었는데, “我是天主所愛的。”와 “萬物是天主所爲的。”가 있다.

피동태의 유형 ①과 ②는 소위 '장거리 被字句'와 '단거리 被字句'라고 불리는 것으로 Varo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Martini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여전히 피동태의 두 유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Varo가 유형 ①과 ②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被字句 부분과 문장 구성 부분에서 유형 ①을 강조했고 Martini 역시 유형 ①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17세기·18세기에는 유형 ①이 유형 ②보다 많이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된다.²³⁾

6) 부정

Martini(1998:422, 2011:121)는 중국어의 부정에 대하여 간단히 '不', '莫', '無', '不可', '不然'을 언급하면서 부정 또는 금지를 나타낸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예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Varo(1703:43-46/2000:101-107)의 문법적인 분석은 확실히 Martini의 분석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진일보한데, 중국어의 부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3-5〉 *Arte Mandarina*(1703)의 부정(Negation) 체계

	형식	예문
절대부정	不·非·沒·弗·無·莫 + N/V/A + 是+N	非來的。沒有人來。弗去。 不是人。
금지부정	不要, 毋, 勿	你不要說。 天主教有誡毋殺人。
극단적인 절대부정	全, 絕, 晚 + 부정사	全不來。都不肯。
긍정적인 부정	哪里	哪里有。哪里來。
시간부정	未曾, 不曾, 還不, 還未, 沒有	未曾吃。還不去。也不會念經。

23) 袁賓(1989/1999:196)의 통계에 따르면, '被'자 뒤의 NP₂(施事)의 출현은 『世說新語』, 『百喻經』에서는 각각 22%, 33%에 불과했으나, 唐代에 이르러 『敦煌變文』, 『祖堂集』에서는 49%, 78%에 이른다.

특히 Varo(1703:45/2000:105)는 “문장에서 어떤 것이 부정되었을 때 부정사는 항상 부정되는 것 앞에 둔다.”라고 하면서 부정사의 위치를 강조하였는데, 극단적인 절대 부정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 (8) a. 吃不多。
 많이 먹지 말아라.
 b. 都不吃。 (1703:45/2000:105)
 모두 먹지 않았다.

Varo는 (9a)와 같은 문장에서 부정사 ‘不’는 ‘多’를 부정하며, (9b)와 같은 문장에서는 ‘吃’를 부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지금 보더라도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부정의 범위를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Varo는 또한 긍정적인 부정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소위 ‘이중 부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 (9) a. 無所不能。
 못할 것이 없다
 b. 沒有人不來。
 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c. 不得不來。 (1703:46, 2000:107)
 부득불 왔다.²⁴⁾

7) 중국어의 시제

Martini(1998:415, 2011:114)는 중국어의 시제를 크게 과거·현재·미래로 구분하였으며, 과거 미완료(Praeterium Imperfectum)를 추가하였다.

24) 비록 Varo는 ‘不得不’을 이중 부정의 하위 유형으로 보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다’를 의미하는 부사로 간주된다.

〈표 3-6〉 Martini의 중국어의 시제 구분²⁵⁾

시제	형식	예
과거	+了 +過了	我愛了。 我愛過了。
현재	∅	我愛。
미래	+將	我將愛。
과거 미완료	那時間, 那時節, 才	那時間愛。

라틴어의 시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체계(현재, 미래, 미완료)와 완료 체계(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로 구분된다는 점에서(Wheelock 2005:87), Martini는 라틴어의 시제 체계를 중국어에 억지로 적용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Varo(1703:51-52/2000:117-118)는 중국어의 시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 3-7〉 Arte Mandarina(1703)의 시제 체계

시제	형식	예
현재	∅형식 또는 시간부사	我去。 我如今愛天主。
미완료 과거	시간부사(時), 才/方	我來時。 我才行時節。
과거 완료	了, 已, 有	賣了, 已過, 有進。
과거완료 과거	完了, 過了	你到時候, 我進過了。
미래 미완료	將, 會 시간부사	將死 我明日去。
미래 완료	시간부사+了	他來時候, 我去了。

Varo의 중국어에 대한 시제 구분은 Martini의 시제 구분보다 훨씬 복잡하다. Martini가 중국어의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완료로 구분한데 비해, Varo는 과거를 3등분, 미래를 2등분하여 총 6개(3+2+1)로 구분하였다. 이는 Varo가 라틴 문법의 6시제 개념을 중국어에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Martini의 시제 구분이 중국어의 현실에 좀 더 적절한 것임을 알 수

25) Martini는 1장 단어 부분 설명에서 ‘了’는 동작의 완성(finis)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過’는 ‘통과하다, 초과하다(transire, superare)’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있다. 물론 중국어에서 시제의 존재 유무와 상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논쟁 중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공통된 문법 항목들에 대한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해보았는데, 대부분 (양사를 제외하고는) *Arte Mandarina*가 *Grammatica Sinica*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했음을 알 수 있지만, 반드시 이러한 분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만은 아니었는데, 중국어의 시제부분에서는 *Grammatica Sinica*의 분석이 *Arte Mandarina*보다 중국어의 현실에 훨씬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4. *Arte de la Lengua Mandarina*만의 특징

이 장에서는 *Grammatica Sinica*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Arte Mandarina*에서만 다룬 특징적인 분석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적인 예문

우리는 Varo가 인용한 예들이 상당히 종교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는 *Arte Mandarina*라는 책에 인용된 예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또한 *Arte Mandarina*가 다른 문법서와 구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Varo 이전의 Martini나 Varo 이후의 선교사들의 문법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Varo 자신이 중국어에 상당히 능통하여 자신감이 있었다는 점과 Martini나 Mateo Ricci등의 예수회와는 달리 Varo가 몸담은 도미니크회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Masini(1993:2005:32)는 예수회와 도미니크회간의 선교 방법에 차이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예수회는 주요 대상이 고위층인 반면, 도미니크회와 프란체스코회는 교리와 교리를 전달할 언어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하층민을 선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Sandra(2000:28) 역시

도미니크회는 중국 남방 방언에 기반을 두면서 이론적인 문법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예수회는 구어를 중시했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발화의 세 가지 방식

Varo(1703:2/2000:19)에서는 1장에서 중국어에는 세 가지 방식의 발화가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쓰는 고상한 방식으로 쓰는 것처럼 말해지는 것으로 선교사들이 이러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대다수의 중산층이 쓰는 방식인데, Varo는 특히 이 두 번째 방식을 중시했다. 세 번째는 저속하며 상스러운 방식으로, 주로 소작농들을 꾸짖을 때 사용되는데, 선교사들이 이러한 중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다.

- (10) a. 欲升天者，可行眞善路。若不然，豈得到。
 b. 但凡人要升天，該當爲善。若不爲善，自然不會升天。
 하늘에 오르고자하는 이들은 선을 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 (1703:2 / 2000:19)

(10a)는 두 번째 방식이며, (10b)는 세 번째 방식이다. Varo(1703:2 / 2000:19)는 (10a)에서 '欲', '者', '可', '眞', '路'를 사용함으로써 비교적 분명하고 고상하다고 하였으며, (10b)에서는 '但凡', '要', '該當'을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속하다고 하였다.

Varo의 이러한 관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첫 번째 방식은 소위 '서면어(文語)'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방식은 '백화(白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어의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관찰한 Varo의 안목이 상당히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동사

明末 清初시기에는 다양한 조동사들이 사용되는 시기인데, 예를 들면 ‘要’는 唐代 이후 이미 조동사 용법이 성숙하였으며, ‘應當’ 역시 중고시기 이후 많이 쓰인 조동사이며, ‘會’는 宋代 이후 조동사 용법이 생겨났다(太田辰夫 1958/2003:185-189). 그러나 *Grammatica Sinica*에서는 이러한 조동사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반면²⁶⁾, *Arte Mandarina*에서는 ‘要’, ‘會’, ‘能’, ‘該’, ‘當’ 등이 상세히 언급되었다.²⁷⁾ 하지만 Varo는 조동사를 이른바 의무(deontic)와 인식(epistemic)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것들을 조동사가 아닌 불변화사들로 언급되었다는 점은 이쉽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확실히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의 문법서와도 대조되는 점이다.

- (11) a. 只奉天主教者, 可以升天, 其余不能升天.
천주교를 믿는 자만이 승천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승천할 수 없다. (1703:27/2000:69)
- b. 他要來。我要升天。
그가 올 것이다. 나는 승천하고 싶다.
- c. 我該 / 當愛了。 (1703:54/2000:123)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4) 의문

의문에 관해서 *Grammatica Sinica*에서는 다만 의문사 ‘誰’만이 한 차례 언급되었을 뿐(1998:413, 2011:113),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반해 Varo (1703:46 / 2000:107)는 중국어의 의문형은 크게 의심형, 탐구형, 그리고 시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26) 다만 1장 단어부분에서 ‘能’은 ‘能够(potere)’를 의미하며, ‘要’는 ‘想(volere)’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27) Varo(1703:54/2000:123)는 “미래 불변화사는 세 가지 불변화사 ‘要’, ‘會’, ‘將’ 중 하나를 앞에 두고, ‘者’와 ‘的’를 뒤에 둬서 의해 만들어진다.”고 언급하면서 ‘凡要愛者’, ‘凡會去的人.’의 예도 들었다.

(표 4-1) *Arte Mandarin*(1703)의 의문 유형

종류	형식	예
의심형	'麼', '乎', '否', '不會', '不'를 추가	你睡了麼? 你做了否?
탐구형	'怎麼', '怎麼樣', '何因', '何故', '爲什麼', '什麼', '是哪'를 첨가	怎麼(樣)做得? 何如傷他? 什麼緣故不念經?
시간 의문	'几', '什麼時候', '哪(一)時'	几年, 几月, 幾個時辰
양 의문	'几'	几个? 几多? 几本? 几多長?

의심형은 '麼', '乎', '否', '不會', '不'를 문장 끝에 붙여서 반문하는 형식이며, 탐구형은 '怎麼', '怎麼樣', '何因', '何故', '爲什麼', '什麼'를 문두에 붙여서 묻는 방식이며, 시간과 양 의문문은 말 그대로 '几' 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양 의문을 묻는 방식이다. 요컨대 의심형은 기본적으로 의문조사가 붙어서 형성되는 유형이며, 탐구형은 의문부사가 붙어서 형성되는 유형이며, 시간의문은 시간사가 첨가되어 형성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5) 불변화사

Arte Mandarin(1703)의 품사 체계에서 불변화사(particula)는 가장 특징적인 품사라고 할 수 있다. Varo는 이 불변화사를 중시하여 별도로 한 장(13장)을 할애하여 '當', '一', '打', '著', '替', '今', '百', '可'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불변화사는 일반적으로 어미 굴절에 의한 변화를 하지 못한 품사들로 접속사들, 부사, 전치사 및 감탄사 등을 포함하는데,²⁹⁾ Varo의 경우 數詞('一', '百'), 동사('打'), 조동사('不當')³⁰⁾, 시간사('今'), 부사('便'), 조사('得'), 개사('替'), 양사('個')가 포함되어 實詞와 虛詞가 뒤섞여 있으며 이에 관하여 Varo 역시 정확한

28) 비록 Varo(1703:46/2000:107)는 의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양 의문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29) 조성식(1990: 863) 참조.

30) Varo는 '當'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본문에서는 '不當(不當明白, 不當好, 不當高, 不當遠, 不當富貴)'을 설명하였다.

정의의 내린 바가 없어 Arte Mandarina의 불변화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파악하기 힘들다.

Sandra(2000:33)는 이러한 불변화사가 비록 논쟁적이지만 중국어에서 특정 기능을 하는 ‘기능어(functional words)’로 정의 내렸고,李文娟(2013:49)은 Varo의 이 불변화사는 품사를 구분하는 현저한 표기라고 하였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불변화사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 필자는 이러한 불변화사는 초창기 선교사들의 중국어에 대한 라틴문법의 과도한 적용의 산물이라고 여긴다.

5. *Grammatica Sinica*와 *Arte de la Lengua Mandarina*의 문제점과 의의

다음으로 이 책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Grammatica Sinica*와 *Arte Mandarin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권 모두 품사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미 앞장에서 언급된 것 외에도 Maritni는 개사의 예로 ‘前’, ‘後’, ‘上’, ‘下’, ‘內’, ‘外’, ‘里’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류들은 오늘날에는 방위사로 명사의 하위 부류에 든다. Varo 역시 크게 다르지 않는데, 부사 부분에서 ‘喜歡(“你喜歡照顧別人。”), ‘該(“該去拜他。”)와 같은 조동사, ‘粗(“你講得粗。”)와 같은 형용사, ‘從’, ‘自(“你從哪兒來。”)와 같은 개사, ‘所以와 같은 접속사(“所以要做。”)가 혼재되어 있다.李文娟(2013:13)은 Varo의 명사 체계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즉 Varo의 명사류에는 ‘時時’, ‘終日’와 같은 부사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Varo가 의미에 따라 구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품사 분류상의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Varo의 품사 체계는 Martini의 그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Grammatica Sinica*가 라틴문법의 8품사 개념에 갇혀있었다면, *Arte Mandarina*는 좀 더 유연하게 중국어의 품사 체계를 논의하였음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董海櫻(2011:197)은 Varo가 라틴 문법의 전통에 근거하여 중국어의 단어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詞無定類)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러한 생각은 훗날 馬建忠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³¹⁾

둘째, *Grammatica Sinica*와 *Arte Mandarina* 모두 중국어의 대표적인 특수 구문인 把字句, 使字句와 같은 구문들에 대한 분석은 없다. 비록 *Grammatica Sinica*에서는 단어 부분에서 동사 ‘把’자가 ‘拿着(assipere)’, ‘接受(recevere)’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였으며, ‘一把刀’와 같은 양사 ‘把’만이 언급되었을 뿐이다.³²⁾ 把字句를 포함한 대부분의 특수 구문들에 대한 분석이 없는 까닭은 두 책들이 모두 품사 위주의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비록 *Grammatica Sinica*가 오늘날의 포켓북 개념으로서의 비교적 짧은 문법 서이며 기본적으로 라틴 문법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현존하는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라는 점과 張西平·李眞(2011:4)이 언급한 것처럼 서구 문법의 품사 개념으로 중국어의 품사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³³⁾

*Arte Mandarina*는 *Grammatica Sinica*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을 제기한다면, 첫째, 이 책에서 인용되는 예문들은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도 이 책 자체가 특정 층위(서양 선교사들)를 겨냥하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문들이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익히고 문법 규칙을 습득하는데 적절한가라는 점에는 커다란 의구심이 남는다.

둘째, 경어에 관한 장들(14장, 15장, 16장) 역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장들은 일반적인 문법서의 성격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Matteo Ricci 역시 『중국 견문록』에서 중국의 예법을 상세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예의 문제는 선교

31) 董海櫻(2011:198)이 근거로 든 말은 『馬氏文通』의 “字無定義，故無定類。而欲知其類，當先知上下文之義何類焉。”이다.

32) 동사 ‘把’는 서론에서 다루었으며 양사 ‘把’는 양사부분(1703:73, 2000:161)에서 언급되었다. 이러한 점은 被字句가 피동태 부분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33) 한편 Martini는 중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中國新圖(Novus Atlas Sinensis)』(1655)를 펴내어 중국 지리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張西平(2011:130)은 Martini를 ‘중국지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자 난관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말이다. 이로부터 *Arte Mandarina*는 주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중국에 올 선교사들이 주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⁴⁾

셋째, 지나치게 일반화된 설명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면 Varo는 중국어에는 성(性)의 구별이 없다고 단언하였지만, 바로 ‘男子’, ‘男人’, ‘女子’, ‘女人’등의 예외가 있으며, 동물들의 경우에는 ‘鷄公’, ‘鷄母’, ‘雌雄’의 성의 구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바로 반례들을 제시할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강한 단언을 내리기 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6.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어에 관한 초창기 문법서들인 *Grammatica Sinica*와 *Arte Mandarina*의 전반적인 체계와 특징을 비교하였다. Martini와 Varo 모두 중국어에 굴절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장에서의 위치를 중시하였다. 품사 분류에서는 라틴 문법과 그리스 문법의 영향을 받아 기본적으로 8품사의 분류법을 따르지만, 중국어 품사의 실제 분석에 있어서는 Varo가 Martini 보다 좀 더 중국어의 현실에 맞게 처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Varo의 문법 체계는 Martini의 분석보다는 훨씬 정교하지만, Varo 역시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고, 경어에 관한 일부 장들은 문법서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여겨진다.

이 두 책들의 구성과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4)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Varo가 책 표지에서 “이 문법서가 새로운 성직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표 6-1〉 *Grammatica Sinica*와 *Arte Mandarinana*의 비교

	<i>Grammatica Sinica</i>	<i>Arte Mandarinana</i>
출간시기 (필사본)	1696(1651-1652)	1703(1684)
교파	예수회	도미니크회
품사	8품사 위주	8품사 위주(실제로는 10품사)
격	속격(‘的’)만 언급	주격, 속격, 여격, 대격, 호격, 탈격
부정	단순부정(‘不’, ‘莫’, ‘無’, ‘不可’, ‘不然’)	절대부정, 금지부정, 극단적 절대부정, 긍정적 부정, 시간부정
의문	‘誰’만이 대명사에서 언급됨	3가지 유형(실제로는 4가지 유형을 언급함)
시제	과거·현재·미래·과거완료	현재직설, 미완료과거, 과거완료, 과거완료과거, 미래미완료, 미래완료
被字句	장거리 피동	단거리 피동, 장거리 피동
把字句· 使字句	언급 안 됨	언급 안 됨
조동사	언급 안 됨 (단어 설명에서만 언급됨)	‘要’, ‘會’, ‘能’, ‘該’등은 불변화사로서 언급됨
경어	없음	3장(14장, 15장, 16장)에 걸쳐 언급됨
기타특징	단어설명·부수 포함	종교적인 예문, 불변화사, 발화의 세 가지 방식 포함

위의 표 〈6-1〉에서 알 수 있듯이 *Grammatica Sinica*보다 *Arte Mandarinana*가 모든 체계에서 훨씬 정교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제 부분에서는 *Grammatica Sinica*의 분석이 라틴 문법의 체계에 얽매인 *Arte Mandarinana*보다 더 적절함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과연 Varo가 Martini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는가는 점이 궁금했는데, 시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Grammatica Sinica*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Varo 자신이 Martini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점을 지지한다.

두 책 모두 오늘날의 관점에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순수한 문법서로도 보기도 힘들며, 라틴 문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책들을 토대로 하여 이후 19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의 문법서들이 활발하게 출간되었다는 사실과 17세기·18세기 서구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편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Grammatica Sinica*와 *Arte Mandarina*에 대하여 대략적인 고찰을 하였지만, 이를 통해 이 책들의 중국 언어 학사에서의 위치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 Bertuccioli Giuliano(1996), "De Amicitia and other Chinese works", *Martino Martini*, Unversita Degli Studi di Trento.
- _____ (1998), *Martino Martini Opera Omnia vol II*. Unversita Degli Studi di Trento.
- _____ (2003), "Martino Martini's *Grammatica Sinica*", *Manument Serica* 51.
- Coblin, South and Joseph Levi(2000), *Francisco Varo's Grammar of the Mandarin Language(1703), An English Translation of Arle de la Lengua Mandarina*,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Franco Demarchi & Riccardo Scartezzini(1996), *Martino Martini*, Unversita Degli Studi di Trento.
- Frederic M.Wheelock(2000), *Wheelock's Latin*, 이영근 옮김(2005), 『월록 라틴어 문법』,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 Lundbaek Knud(1990), "Philippe Couplet in the writings of T.S.Bayer", Jerome Heyndrickx(1990), *PHILIPPE COUPLET*, Steyler Verlag.
- Masini, Federico(1993), *The Formul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이 정재(2005) 옮김,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소명출판.
- Matto Ricci(1610), 劉俊餘·王玉川 번역(1986), 『利瑪竇中國傳教史』, 光啓出版社, 신 진호·전미경(2011) 옮김, 『마테오 리치의 중국 견문록』, 도서출판 문사철.
- Partenico Luisa(2011), "Martino Martini and the First Grammar of Mandarin Chinese Ever Written and Published", 『漢學研究』 29.
- _____ (2011), 「從『中國文法』到『中國語文文法』」, 『中國文法』, 白樺 翻譯, 華東師範大學校出版社.

- Sandra Breitenbach(2000), "The Biographical, Historical, and Grammatical Context of Francisco Varo's *Arte De La Lengua Mandarin*", *Francisco Varo's Grammar of the Mandarin Language*(1703),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Suetonius Tranquillious, *De Illustribus Grammaticis*, 안재원 주해(2013), 『로마의 문법학자들』, 한길사.
- Takeda Masaya(1998), *Soketsutachi No Utage*, 서은숙 옮김(2004), 『창힐의 향연』, 이산.
- 서양자(2010), 『칭나라 궁중의 서양 선교사들』, 순교의 맥.
- 조성식(1990), 『英語學辭典』, 시사영어사.
- 董海櫻(2011), 『16世紀至19世紀初西人漢語研究』, 商務印書館.
- 龔千炎(1986), 『中國語法學史稿』, 이진영·이해우 옮김(2001), 『中國語法學史稿』, 도서출판 중국학센터.
- 李臨定(1980), 「被'字句」, 『李臨定自選集』(1999), 大象出版社.
- 李文娟(2013), 『華語官話語法』語法研究,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太田辰夫(1958), 『中國語歷史文法』, 莊紹愚·徐唱華(2003) 譯, 北京大學出版社.
- 王力(1980), 『漢語史稿(中)』, 中華書局, 박덕준 외 공역(1997), 『중국어 어법 발전사』, 사람과 책.
- 衛匡國, 『中國文法』, 白樺(2011) 翻譯, 華東師範大學校出版社.
- 妖小平(2001), 「現存最早的漢語語法著作」, 『中國語文』 5.
- _____(2011), 「西方語法理論與中國語言事實的初始遭遇」, 『中國文法』, 白樺(2011) 翻譯, 華東師範大學校出版社.
- 袁賓(1989), 「祖堂集'被'字句研究」, 蔣紹愚(1999)編, 『近代漢語研究』 2, 商務印書館.
- 張西平(2011), 『西方漢學十六講』,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張西平·李真(2011), 「中國文法·序一」, 『中國文法』, 白樺(2011) 翻譯, 華東師範大學校出版社.

〈英文摘要〉

It is often said that *Mashiwentong* is the first Chinese grammar book. But It is not true because before this book there were many Chinese grammar books written by Western missionaries.

This article introduced about the first Chinese grammar *Grammatica Sinica* by Martino Martini and the second Chinese grammar book *Arte de la Lengua Mandarina* by Francisco Varo in 17th and 18th centuries.

After comparing two books in various aspects, we found that the grammatical system of *Arte de la Lengua Mandarina* is much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Grammatica Sinica*.

However it doesn't mean grammatical analysis of *Grammatica Sinica* is not go good, because analysis about Chinese aspect is almost same as modern Chinese grammar. Besides, *Arte de la Lengua Mandarina* has unique parts, such as religious examples, various particles, three modes of speaking Chinese, Courteous words in conversation, modes of interrogation, etc.

Especially on the today's viewpoint Varo too much emphasized Courteous words and politeness because this topic is not grammatical problem and it should not involve grammar book.

Even though these books have some mistakes and were deeply influenced by Latin-Greek Grammar, but these books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hat they blaze way for other western missionaries to study Chinese.

Key words: *Grammatica Sinica*, *Arte De La Lengua Mandarina*, Martini, Varo, Western Missionaries

이 논문은 2014년 7월 14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